

‘광주 정치 1번지’ ... 박주선 4선이나 이병훈 설욕이나

■ 누가 뭐나

‘광주 정치 1번지’라고 불렸던 동구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지난해 10월말 기준 14만명) 기준에 걸려 인근 남구 선거구 일부와 합쳐져 동남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기존 동구 선거구에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등 6개 동(洞)이 합쳐졌다.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동구와 남구 일부가 합쳐진 동남을 선거구의 유권자들은 아직까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을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광주지역 8개 선거구 중 후보군이 가장 적은 곳이다.

더불어민주당 VS 국민의당 후보 간 1대1 구도가 형성돼 있다.

현역인 박주선 국회의원의 4선 도전에 맞서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이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또 다시 도전장을 던졌다. 19대 총선에 이어 또 다시 ‘리턴매치’가 이뤄진 셈이다.

특히 동구청장 재선거로 인해 ‘국회의원-청장’ 후보간 러닝메이트 조합이 어떻게 이뤄지느냐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새누리당=광주지역 일부 선거구의 후보 기근 현상에도 선거구 획정 이전인 동구 선거구에 이례적으로 3명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했다.

새누리당의 ‘불모지’인 광주에서 한 선거구에 3명의 후보가 공천을 신청해 지역정가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에 따라 조정된 선거구 후보자를 추가 공모했고, 그 결과 고동술(74) 광주분양교회 당회장, 문충식(57) 국민대통합위원회 통합가치분과 자문위원 등 2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름	이병훈	박주선
나이	59	66
역력	·전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 ·전 광영군수	·현 국회의원 ·전 당 최고위원

■ 광주지역 선거구



더민주 對 국민의당 후보 1대1 구도... 19대 이어 리턴매치

새누리 고동술·문충식 공천 신청 ... 주중 최종후보자 선정

더민주 4년간 외신상담 이병훈 “창조적 원도심 부활할 것”

국민의당 ‘4번 구속 4번 무죄’ 박주선 “호남정치 복원 앞장”

애초 동구에 공천을 신청했던 김연옥(49) 전 청와대 행정관은 광주 서구를 선거구로 옮겨 공천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고동술 당회장과 문충식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한 뒤 이번 주중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애초 광주 동남을 선거구는 경선이 예상됐었다. 인재 영입 케이스로 더민주에 입당했던 오기형 변호사가 동남을 선거구에 공천신청을 내면서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과 경선이 예상됐다.

하지만, 오기형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도봉으로 전락공천되면서 사실상 이병훈 예비후보가 단수 후보가 돼 공천이 유력시됐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지난 4년 간 노력의 결실을 얻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려 한다”며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표심을 다지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동구가 당시 민주당의 무공천지역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며 “정치 신인이라는 불리한 조건 하에도 19%에 달하는 지지를 얻어 지역의 진정성과 희망을 봤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 이후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협동조합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해 왔다.

그는 특히 동구와 남구 등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갖고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교육 및 의식 개선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이 후보의 강점은 ‘진정성’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갈등 해결의 전

문’가로도 통한다.

이 후보는 여러 부처와 공직을 거치며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왔다.

행시(24회)로 공직에 발을 내딛은 뒤 청와대 행정관, 광양군수,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주민지원본부장,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 후보는 현재 아시아문화전당을 있게 만든 총 책임자였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실무 책임자(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 1급)로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명박 정부가 사업을 축소시키려 할 때 당초 계획안을 굳건히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 재직 당시 문화전당 주변 상가 활성화와 서민경제 유지를 위해 한바탕도 운영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번 총선의 공약으로 “사람이 불

러드는 창조적 원도심의 부활”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공약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과 무등산 연계, 연간 500만명 관광객 유치 ▲쾌적한 도시, 원주민이 떠나지 않는 주택 재개발과 도시재생 ▲아이디어만 있으면 생산 가능한 창업의 보금자리 구축 ▲안정적인 노후생활 및 노인 복지의 확대 ▲어린이 창의교육 시범학교 운영 및 어린이 보육·치유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당=16대 총선에서 화순·보성에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박주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한다. 동구에서는 3선 도전이다.

박 의원은 “호남정치의 부활과 문화·교육의 중심, 새로운 동구·남구시대를 열겠다”며 제20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의원의 가장 큰 강점은 ‘경륜’과 ‘큰 정치력’이다.

실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주선은 나와 역사를 함께 쓸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박 의원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던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비자금 수사사건 유보 결정’을 이끌어 내고 1998년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혁을 주도하면서 능력과 자질을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적인 시련이 많은 정치인으로 꼽힌다.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명 ‘웃로비 사건’(1999년)과 나라중금 사건(2003년), 현대 비자금 사건(2004년)에 연루돼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광주 동구로 지역구를 옮겨 전국 최고 득표율로 당선되며 재기에 성공했다.

그러나 또 다시 지난 19대 총선 때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동장 자살’ 사건이 발미가 돼 구속됐지만, 또 다시 무죄를 선

고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노인과 여성층에서 두터운 지지세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전국 최초 음급료시스템 구축, 여성 출산 장려금 확대,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을 통해 다양한 지지계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 주요 복지시설과 아동센터 및 경로당에 대한 기업체 후원과 연대를 이끌어내 열악한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도 충실히 해 왔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는 지역구인 광주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던 구도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법인 ‘구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동구는 광주지역 5개 자치단체 중 가장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또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성과를 냈으며, 도입공원이었던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데도 한몫했다.

박 의원은 “친노 패권주의가 야권을 지배하는 지난 10년 동안 호남은 표만 주고 이용만 당하면서 정치적 무기력에 빠졌으며, 두 번의 대선과 총선, 각종 선거에서 연전연패해 차별과 소외가 더욱 심화됐다”며 “호남정치의 부활을 통해 정권교체의 선봉에 서겠다”면서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관전 포인트

현역 의원인 박주선 의원의 4선 성공 여부와 더민주 이병훈 예비후보의 반격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관심사다.

박 의원은 지난 16대 총선에서 화순·보성 선거구에서 당선돼 정계에 공식 입문한 뒤 18대 총선에서 광주 동구로 선거구를 옮겨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당선되면 4선에 성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호남의 ‘정치 거물’ vs 사실상 ‘정치신인’의 대결 결과에 어떻게 나올지

동구청장 재선거 ... 러닝메이트 조합 관심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병훈 예비후보는 4년 전 박 의원에 패배한 뒤 지역을 떠나지 않고 주민들과의 소통의 폭을 넓히며 ‘외신상담’해 온 만큼 4년 전 패배의 ‘설욕전’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동남을 선거에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동구청장 재선거 후보간 러닝메이트 조합도 관심사다.

현재 국민의당은 8명의 후보가, 더민주 후보는 2명의 후보가 공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이번 주말께 경선이 치러져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더민주 vs 국민의당의 ‘국회의원-청장’ 후보간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지역구 특징

동구는 광주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인구가 9만9000여명으로 인구 하한(14만명)에 못 미쳐 남구와 통합·조정됐다.

인구하한선에 걸려 이번 20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남구와 일부 행정동과 합쳐져 ‘동남을’ 선거구로 선거가 치러진다.

동남을 선거구는 기존 동구 일원에 남구 양림동, 방림 1·2동, 사직동, 백운 1·2동 등 6개동이 새로 편입된다. 동구에 편입되는 남구의 인구는 5만5000여명이다. 따라

인구 하한 못미쳐 남구 6개동 새로 편입

서 동남을 선거구 인구는 15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동구 유권자 수는 8만5000여명으로, 남구 6개 행정동이 편입됨에 따라 유권자수는 12만여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는 전남과 광주광역시로 분리되기 이전인 12대 총선에서부터 신기하 의원이 신한민주당·평화민주당·민주당·새

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4선을 한 지역구다.

이어 16대 총선에는 시민단체 몫으로 공천을 받은 김경천 의원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됐고, 17대 총선에서는 양형일 의원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후 18대부터 박주선 의원이 현역 의원을 유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토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무출혈 / 무통증 / 무봉합 / 무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당뇨병-갑상선 건강강좌

- 좌장 · 이문규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이사장)
- 강사 · 김재현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총무이사)
- 강호철 교수(화순전대병원)
- 김순호 부장(광주기독병원)
- 김상용 교수(조선대병원, 현 당뇨병학회 수석 부총무)
- 양태영 원장(태영21병원, 현 당뇨병학회 일차진료 이사)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3:30~4:30

장소 · 태영21병원 2층 세미나실

문의 · 062)362-0075 (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21병원 제22회 정기 음악회
3월 18일(금) PM 6:30

